

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

속담의 뜻

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어떻게 하죠? 등록금을 잃어버렸어요.

나: 아니, 어떻게 하다가요?

가: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다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. 내일까지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...

나: **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**는 말이 있잖아요. 무슨 방법이 있을거예요.

(Kaynak: 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203)

남의 떡이 커 보인다

속담의 뜻

똑같은 것이라도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저 이번 휴대폰 새로 샀어요.

나: 어? 저랑 똑같은 모델이네요.

가: 그런데 제 것보다 수지 씨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.

나: 그럴 리가 있어요? **남의 떡이 커 보이는** 법이에요.

(Kaynak: 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209)

짚신도 짝이 있다

속담의 뜻

보잘것없는 사람도 누구나 결혼할 상대는 따로 있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지난번에 우리 딸 소개시켜 줘서 고마웠어요.

나: 따님이 그 남자 어떻대요? 마음이 든대요?

가: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우리 딸은 마음에 안 든대요. 이 사람도 싫다고 하고 저 사람도 싫다고 하니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

나: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**짚신도 짝이 있다**고 안젠가는 잘 맞는 남자가 나타날 거예요.

(Kaynak: 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216)

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

속담의 뜻

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가 어렵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저 팀은 사람이 많아서 의견 통일이 안 되나봐.

나: 저렇게 서로 다른 의견만 내세우면 시간 안에 과제를 못 끝낼 텐데.

가: 글썸 말이야, 서로 양보하고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...

나: **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**라는 말도 있잖아. 말처럼 쉽지 않을 걸.

(Kaynak: 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230)

배보다 배꼽이 크다

속담의 뜻

커야 할 것이 작고, 작아야 할 것이 오히려 크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어서 오세요. 뭘 수선하실 건가요?

나: 이 바지를 수선하려고 하는데요.

가: 어디 보자. 수선비가 이만 원 들겠어요.

나: 네? 이만 원이라고요? 이거 팔천 원짜리 바지인데 **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.**

(Kaynak: 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236)

금강산도 식후경

속담의 뜻

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배가 불러야 신이 나고 관심이 간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여기 경치 좋지? 여기서 보면 서울 시내를 다 볼 수 있어.

나: 와! 정말 멋있다!

가: 다 봤으면 다른 데로 가자. 다음에 우리가 구경할 것은...

나: 잠깐만!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 밥부터 먹으면 안 될까? 나는 배가 고프면

아무것도 못해.

(Kaynak: 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240)